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아산 시내버스 마스크 쓰고 달린다



1, 2 아산 시내버스 마스크 쓰기 캠페인 3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설명하는 오세현 시장

충남 아산에서 운행되는 버스가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산시가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스크 모양의 공공 디자인을 활용한 캠페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아산 공용버스 전체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 모양 디자인을 차체에 부착하고 달릴 예정이다.

마스크 디자인은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한 장훈종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재능 기부 형태로 무상 제공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며 시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등 주요 시설에도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수도권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될 만큼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자가 방역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아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월 4일

오전 기준 41명으로, 수도권발 2차 확산이 시작된 8월부터 18명이 추가됐다.

오세현 시장은 “시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 주체로 참여해 옆 사람을 배려할 때 비로소 코로나 종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36억5천여만원 신속 지급

충남 아산시는 지난 9월 3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본 2천563명에게 모두 36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망 1명 2천만원, 가옥 전파 3가구 5천50만원, 반파 6가구 4천950만원, 주택침수 569가구 12억9천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1천984가구 22억3천725만원이다.

이번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며, 지난해 사례로 볼 때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 전에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